

Newsletter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 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 9:37,38)



- 한인 최초ATS 인준! 교회음악 박사과정 / 상담대학원 오렌지카운티 분교
- 교회음악과 박사과정 신설 기념 마스터 클래스 (Donald Neuen)
- 2017년 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학술세미나
-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설교축제
- 봄학기 학생수련회
- 찬양사역 세미나
- Spring Festival
- Student Music Festival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월드미션대학교 | www.wmu.edu | 213.388.1000 |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공지사항>

- 학위수여식 6월 3일 1시
미주평안교회 (170 Bimbini Pl, LA, CA 90004)
- 교회음악학과 박사과정 모집중
- 사무실 부서이전
(2층 : 입학처,사무처,등록처,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LOS ANGELES, CA
PERMIT NO. 3194



한인 최초 ATS 인준! 교회음악 박사 / 오렌지카운티 상담대학원

한인 신학교 최초 교회음악 박사과정 인준

2017년 월드미션대학교는 역사와 전통에 근거한 교회음악 이론을 정립하고, 영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교회음악 지도자와 교육가들을 양성할 교육기관으로서 미국의 교육 인준기관 중 가장 권위있는 신학대학원 협의체인 ATS로부터 2017년 2월 2일, 한인 신학교로서는 최초로 교회음악 박사과정을 인준 받았다.

교회음악 박사과정은 교회음악을 중심으로 연주와 연구, 그리고 관련학문 영역에 있어 전문적 수업이 이루어지는 고등전문과정으로 총 48학점의 학업을 통해 학생들은 지적, 영적, 실기적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교회음악 사역에 유능한 리더로, 교회의 영적, 음악적 리더를 지도하는 교육자로 양성된다.

한편, 월드미션대학교는 지난 2012년 ATS인가 학교로는 처음으로 기독교 상담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이후, 2017년 ATS로부터 오렌지카운티에 기독교 상담대학원 분교(Extension Site)를 인준 받았다. 이로써 월드미션대학교는 LA와 OC로부터 양질의 상담대학원 교육을 한인사회에 제공하게 되었다.



ATS인준 기자간담회

- ▶ 왼쪽 아래부터 박숙경교수, 송정명 총장, 임성진 부총장,,
- ▶ 왼쪽 위부터 윤임상교수, 윤에스터교수, 신선목교수

한편, 2월 17일과 3월 14일에는 교회음악 박사과정 신설 기념 마스터클래스가 열렸다. 2월 17일에 열린 마스터클래스는 Kathryn Pizar 박사의 클래식시대 거장 하이든, 모짜르트, 베토벤의 실제적인 연주 기술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3월 14일에 열린 마스터클래스는 특별히 세계적인 지휘자 Donald Neuen 교수가 멘델스존의 <Elijah>를 Solo/Chorus/ Conducting and Choral Techniques로 나누어 강의하였다.

이번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클래식시대와 오라토리오 분석에, 리허설 기술 그리고 지휘 관행을 정립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O.C 열린강의

- ▶ 오렌지카운티의 열린강의에 참여한 학생들과 김하서 교수의 강의



교회음악 박사과정 신설기념 마스터클래스

- ▶ Donald Neuen 교수님 및 월드미션대학교 학생과 일반 청강생들

2017년 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 본교에서 열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신입학생들과 재학생 및 교수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1월 10일 캠퍼스와 원격 교육과정 등에서 새로운 학우들이 입학하였다. 분주한 주중 시간과 비오는 날씨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입생의 귀한 발걸음이 본교로 향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신입생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신입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6시 부터는 본교 채플실에서 최윤정 학생처장의 사회로 신입생 환영회가 이어졌다. 동문회장인 주익성 목사의 식사기도로 신입생, 재학생, 교수, 교직원과 동문 등이 모인 가운데 식사와 교제를 나눴다. 이날 월드미션대학교 송정명 총장은 신입생들에게 환영의 인사와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교직원과 학생회 소개의 순서가 있었으며 특별히 신입생 소개 시간에는 신입생마다 월드미션대학교에 입학한 계기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나눔의 시간은 매우 인상깊었다. 송 총장의 축도를 끝으로 2017년 봄학기 신입생 환영회는 성황리에 끝났다.

2017년 봄학기 오리엔테이션은 오후 3시부터 시작하여 약 5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긴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빛내준 신입생 및 학교 관계자들로 인하여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2017년 신입생들을 통하여 월드미션대학교가 더욱 하나되며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장성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



학술세미나

봄 학기 학술세미나가 3월 14일 본교 채플실에서 'Culture Humility(문화적 겸손)'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초청 강사는 Biola University, Rosemead School of Psychology 교수인 Dr. Christina Lee Kim으로 진행되었다. 제곱하게 되었다. 이 날 세미나에서 상담가로서 또 사역자로서 지녀야 할 겸손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Christina Lee Kim 교수는 이전의 Cultural Competence 모델과 Cultural Humility 모델을 비교해보고, Humility에 대한 사전적, 심리학적, 성경적 의미에 대해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문화의 다름 이라는 것은 민족 문화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인 다양한 다름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수 많은 '다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 날 통역에는 대학원 상담학과 디렉터인 김화자 교수가 맡아서 수고하였다.



봄학기 학술세미나

- ▶ Christina Lee Kim 교수님의 강의
- ▶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월드미션 대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



- ▶ 왼쪽 위부터 마명희(M.Div), 현혜경(M.Div) 학우,
- ▶ 왼쪽 아래부터 최은(BABS), 고은혜(BABS) 학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설교축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설교축제가 3월 16일 채플실에서 있었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신학생들을위해 설교축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목회자 후보생들이 갖추어야 할 설교적 기술과 태도를 현장실습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다. 특별히 이번 설교축제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그에 연관된 본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번 설교축제의 평가 기준은 열정과 전달력, 정확한 본문 주해, 구성과 시간감수, 그리고 현장의 적용점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번 설교축제에서는 마명희(M.Div), 현혜경(M.Div), 최은(BABS), 고은혜(BABS) 총 4명이 참가했다. 각자에게 10분씩 주어진 시간 안에 다채로운 본문 말씀과 각 본문에서 종교개혁의 내용을 잘 전달하였으며, 이날의 심사위원으로 송정명 총장, 임종호 교수, 정동원 교수가 수고 하였다.

2017년 봄학기 학생수련회

봄 학기 학생 수련회가 27대 학생회 주최로 지난 24-15일 1박 2일간 ANC 온노리 기도원에서 있었다. '채우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신입생과 재학생 그리고 교수와 동문이 참가하여 갈급한 심령에 단비와 같은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말씀 강사로 나선 이상훈 교수(D.Min Director)는 사명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그것에 부응하는 신학생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찬양과 말씀, 합심기도로 뜨겁게 이어진 첫째날 순서를 마치고 둘째날은 개인 경건의 시간과 산책, 그룹별 모임, 쿠킹 컴페티션, 레크리에이션을 가진 후 폐회 예배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찬양사역 세미나

3월 15일 오후 7시 30분 부터 본 대학 채플실에서 찬양사역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찬양사역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찬양 방법과 사역의 방향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한국에서 건반을 통해 지역 교회와 예배자들을 돕고 섬기는 건강한 사역 마인드를 가진 양희정 강사가 초대되었다. 이번 강의와 양희정 강사의 간증을 통해 월드미션 대학의 찬양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찬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열정을 상기시켜 주었다.



Spring Festival



4월 17일부터 20일에 걸쳐 Spring Festival이 본교에서 열렸다. 재학생들이 주최하고 본교 입학에 관심있는 지역사회 한인들이 초청된 이 행사에서 학과별 부스 홍보, 먹거리 장터, 바자회, 토크 콘서트, 워십 앤 프레이즈, 공개강의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OC 상담대학원에서도 17일 공개강의가 열렸다.

18일에는 특별히 '꿈이 있는 자유' 정종원 교수가 말씀을 전했다. 예배를 마치고 입학 설명회가 진행 되었는데, 김현경 교수의 '안전한 피난처', '친밀한 부부관계'라는 강의로 진행 되었고, 최윤정 교수의 '설득 커뮤니케이션'강의와 류시하 교수의 'Homo Ethicus'라는 강의로 진행되었다.

20일에는 장터로 Spring Festival이 이어졌는데, 이날 장터에서는 학과별로 음식을 준비하였다. 이어서 신학과의 남종성 교수, 상담학과의 김화자교수 그리고 음악과의 윤임상 교수가 참여한 '너의 목소리를 보여줘'라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이 날은 이광욱 학우가 총 진행을 맡았으며 토크 콘서트 중에 WMU학우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기량을 펼쳤다.

이 날은 정성은 교수의 '에스겔/다니엘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 했으며, 문두진 교수는 '기독교 관점에서 본 경제윤리-경제 양극화'라는 주제로 이어갔다. 또한, 이주하 교수는 '종교란 실제로 무엇인가?'라는 강의와 윤임상 교수는 '마틴루터의 교회음악이 종교개혁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강의하였다.



▶ 월드미션대학교 학생들이 Spring Festival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연주에 참가한 WMU 음악과 학생들과 교수진들

Student Music Festival



4월 22일 토요일,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학생들의 학생 연주회가 한길교회에서 있었다.

이번 연주회는 "Masters of Classic Era"라는 주제로 클래식 시대의 거장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음악을 14명의 월드미션 대학교 학생과 3명의 게스트들이 월드미션 대학교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하게 되었다. 이번 연주회에는 심포니, 미사, 오페라 등의 다채로운 구성으로 연주회가 진행되었으며 월드미션대학교 학생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연주회에는 특별히 음악회에 참여한 관중들의 매너가 남달라 음악회를 여는 주최측이나 연주자들이 더욱 음악 연주에 집중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음악회에 참여한 연주자와 관객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 연주회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앞으로도 발전하는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학생들의 모습이 기대된다.

